

네가 겪는 모든 것이 너에게
빠가 되고 살이 됨을 알아라

작성일: 2011년 11월 22일 (화) 새벽 12시 45분
작성자: 이지인

[오늘 하루 마음이 지쳐서 예수님께 무엇이 힘들었는지 고백을 하던 중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]

* 예수님 말씀 *

사람마다 각자 환경에 따라 어려움과 힘이 드는 것이 있다.
그런데 너는 너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 환경을
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여라.

힘들고 어려울 때 겪은 모든 것을
네가 이기기만 한다면
너는 그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
그것이 너에게 다 빠가 되고 살이 됨을 알아라.

사람들은 막상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는
그 모든 것들이 버거워지고,
도망가고 싶고, 사라지고 싶어 하지만
너는 그 상황 가운데,
어렵고 지쳐 있는 너의 감정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,
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
그 상황과 그 힘든 마음이 드는 감정을 자세히 살펴
보아라.
그리고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크게 심호흡하
여라.
왜 너는 힘이 드는 것인지,
왜 지쳐 있는 것인지,
근본을 파악하여 거기에 맞는 합당한 약을 찾기를
힘써라.

너의 힘든 감정에 힘 빠지 말고
빨리 처방전을 나에게 간구하여라.
말씀으로, 깨달음으로, 나를 만남으로
그 감정들을 빨리 처방해야 한다.
주저앉지 말고, 서러워하지도 말고,
그 감정에서 빠져 나와라.

너는 섭리길을 가면서 나에게
힘이 들지 않게, 넘어지지 않게 해 달라고
간구하지 말고
넘어질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
능력과 힘을 달라고 간구하여라.
그것이 지혜로운 기도이다.

아이들이 성장기 때는 길을 가다가 자주자주 넘어진
다.
너도 이 섭리길을 가면서
넘어질 때마다 주저앉아 울지만 말고,
누가 일으켜 주기를 기다리지만 말고,
넘어지는 순간 벌떡 일어나라.
나에게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여라.
그러면 나는 너의 그 간구함을 듣고
네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심어 줄 것이다.
그래서 네가 그 마음을 받고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
네가 해야 되는 책임분담이다.
그 책임분담 위에 나도 너에게
더욱더 큰 역사를 할 수가 있다.